

# 차기 은행협·생보협회장 이달 말 결론... 관료 등판 유력

은행연합회 회추위, 다음주 이사회 늦어도 23일 최종후보 선출 할 듯  
임종룡·최종구·민병두 유력 후보

생보협, 다음주 회추위서 후보 논의  
진웅섭·정희수·최종구 등 하마평

차기 은행연합회장과 생명보험협회장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손해보험협회장에 정지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되면서 관료 출신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회장추천위원회는 이달 셋째주 후보군을 추리고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연다. 김대영 회장의 임기가 이달 30일인 점으로 비춰봤을 때 늦어도 23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최종후보를 선출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장후보추천은 10개 은행장과 은행연합회장 등 총 11명이 비공개로 만나 각각 후보를 추천하고, 몇 차례 논의를

## 은행연합회장 유력 후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쳐 최종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는 관료출신과 정치권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과거의 이력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은행의 수익성 악화와 빅테크와의 경쟁에 얼마나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물론 선출과정에서 은행의 최고경영자 경력도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은행권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관료 우세  
유력한 후보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 생명보험협회장 유력 후보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오랜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3선 의원출신으로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 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이다.

◆생보협회장 진웅섭 전 금감독장 유력  
생명보험협회도 차기 회장 인선작업에 돌입한다. 다음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일정 후보군을 논의한다. 회추위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이사회사 대표이사 5명과 보험관련 학회장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진웅섭 전 금감독장과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는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다. 진 전 원장은 1959년생으로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8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그는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대변인,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거쳐 2017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했다.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은 1953년생으로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정 원장은 이어 새누리당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후 2018년부터 2년간 보험연수원장을 지냈다.

여기에 최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하마평에 올라 있는 상태. 최 전 위원장의 경우 퇴직공직자취임제한제도에 따라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연합회장이 어려울 경우 생보협회장에도 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 전 원장과 정 원장은 이미 차기 회장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도 "생보업계에서 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oul.co.kr

## 금융위 '1만원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전화번호 신고, 후속피해 사전차단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해진다. 피해 신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신고할 수 있게 해 후속피해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철저히 차단해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 상당의 소액이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를 정지시켜 환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신청→금감독·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금감독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인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우리은행 '200일 적금' 가입 앵콜 이벤트

조기 완판에 10만좌 추가판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네이버웹툰 '유미의세포들'과 콜라보레이션해 출시한 우리 200일 적금의 가입 앵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웹툰 방식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우리 200일 적금'은 고객들의 호응 속에 조기 완판이 예상돼 10만좌를 추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음달 23일까지 '앵콜! 유미와 함께하는 우리 200일 적금' 이벤트를 실시한다. 적금 가입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유미의 세포들 캐릭터 피규어, 인형, 파우치, 모바일링 등을 총 200명에게 지급한다.

우리 200일 적금은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일 3만원 이내 금



액으로 맞춤형 플랜을 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금 플랜은 ▲내가 정한 특정금액을 매일 자동이체 하는 '자동이체 플랜' ▲매일 스마트폰 푸시를 받아 누르면 한 번에 입금되는 '꼭 입금 플랜' ▲지정된 계좌의 일정금액의 미만의 잔돈을 매일 자동으로 입금하는 '계좌 자투리 적립 플랜'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석 기자 ysl@



## IBK기업은행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IBK기업은행이 해외직구 시즌을 맞이해 '11월 알리익스프레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업은행 마스터카드 브랜드 소지 회원이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화 기준 50달러 이상 구매 하면 22달러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광군제는 11월 오후 5시부터 선착순 2200명에게, 블랙 프라이데이는 23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 1300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알람서비스

인피니그루와 제휴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방지 앱 피싱 아이즈를 운영 중인 인피니그루와 제휴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싱아이즈는 보이스피싱 의심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시간으로 피해 방지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객의 핸드폰에 전송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 메시지와 피싱 전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핸드폰에 설치된 악성 앱 및 원격제어 앱 등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이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소비자정보 및 다양한 피해 예방 정보, 주의 알람 등도 실시간으로 앱



을 통해 전달한다.

신한은행 고객이 피싱아이즈 앱을 사용하면 고객의 핸드폰에서 탐지되는 문자, 전화, 앱 정보 등 보이스피싱 의심 후가 즉시 신한은행의 '안티(Anti) 피싱 플랫폼'에 공유된다. 이 정보를 통해 신한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방지 알람 또는 고객에게 안내 전화를 실시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기보, 중소기업 '안전인프라보증' 출시

노후설비 교체 등 자금 지원

재해율이 높거나 고령취업자가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인프라보증'이 나왔다.

노후설비 교체, 안전설비 도입, 안전 전문인력 채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술보증기금은 10일 부산에 있는 본사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 및 고령취업자 산업안전 혁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인프라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소기업의 안전사고 증가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종사자 및 고령취업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나 안전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았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안전취약기업 및 우수기업에게 안전인프라보증을 지원하고,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요기업을 안전보건공단에 추천한다.

/김승호 기자 bada@